

순정이

“사람이 빵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마태 4,4)

사순 제1주간

제1독서 : 창세 2,7-9 ; 3,1-7

제2독서 : 로마 5,12-19

복음 : 마태 4,1-11



말씀을 살자



염기봉 신부 / 호성동 천주교회

우리는 또다시 뜻 깊은 사순절을 맞이 하였습니다. 그 동안 살아 오면서 흐트러진 옷깃을 여미고 특별히 내적 쇄신을 도모하는 은혜로운 시기입니다.

오늘 복음말씀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받은 시험을 말해 줍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동시에 시련의 장소입니다. 예수께서 첫번째로 받은 시험은 빵의 유혹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하여 보시오.” 지치신 예수님께는 잔인한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을 하나님의 신통력으로 채워 보라는 유혹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대답하심으로써 영적인 스승의 참 모습을 보여 줍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 내려 보시오” 하면서 악마는 두번째로 인간의 공명심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떠 보지 말라”는 예수님의 이 단호한 말씀은 흔들리는 우리를 바로

잡아 줍니다. 그리고 세번째 시험은 권세의 유혹으로서 “당신이 내 앞에 엎드려 절만 하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는 말에 예수께서는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철저히 우상숭배를 배격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첫째라는 신앙고백입니다. 예수께서 악마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인용하신 세 가지 말씀은 모두 신명기의 말씀들입니다(신명 6,13.16 ; 8,3). 신명기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력을 지니고 있는 가를 회상하면서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박고 살아갈 때 참 구원이 온다는 것을 강조한 성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박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일과 중에서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일하실 때에도 항상 말씀이 바탕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일생에 가장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도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충실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고 이 기쁨은 세상에 새로운 기쁨을 가져 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련은 우리에게도 큰 힘과 용기를 분달아 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의 말씀에 머무르면 새로운 힘을 얻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리고 하루 일과에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고 일하면서 말씀이 중심을 이룬다면 우리는 더 기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시편 119, 105).



세상의 빛이 되소서

— 모든 신자, 신도 육성에 주력 —



회장 문치상(비오) /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공의회의 문헌에 ‘자기 능력대로 교회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지체는 교회를 위해서나 또 자신을 위해서나 아무데도 쓸데없는 지체다(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 1장2항)’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선교사라는 것은 본래 하나의 소명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자기만 소유하고 남에게 베풀지 않고, 활동하지 않고, 생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속에 살면서 세속 일에 파묻혀 사는 게 평신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모든 사람에게 한 분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재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은 각기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면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나 성실과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진리와 선에 대한 사랑을 심어 주고 마침내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범한 14대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평신도의 직분을 이해시키고 교육하는데 첫째 목표를 두고 각 직업·직능별 단체의 조직을 구성, 보강, 강화할 작정입니다.

또한 이미 구성된 교회 안에 조직된 온갖 형태의 사도직 단체가 서로 존경하고 각자의 고유한 성격을 보존하면서 적절히 조정하고 협의하고 지원하는 일도 체계적으로 확립할 것입니다.

둘째는 평신도의 사도직 의식을 고양시키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모든 신자를 사도로 만들기 위해 신성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시키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삶을 영위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탱되고 희로애락을 통해 우리의 인간성을 완성시키는 장(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세는 하나님 나라와는 별개인 양 살고 있습니다.

현세 질서에 복음정신을 침투시켜 흩어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세번째는 환경·자원·생명·이웃 등 무관심 추방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인간성 회복과 질서정립에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끝으로 내년은 우리 교구설정 60주년입니다. 2000년 대회를 앞둔 시점에서의 그 준비작업을 성실히 수행 할 것입니다.

순교자의 얼과 뉘을 기리고 현양키 위해 창무극을 구성 제작, 순교터밭에 새 씨앗을 잉태시키고, 여성단체가 주축이 된 은총의 해 준비운영위 등을 조직, 가정과 공동체의 실천목록을 작성하려는 구상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런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평신도사도직협의회와 조직과 기능을 세분화했습니다.

부회장 다섯분 가운데 김동주 부회장은 지역개발과 문화홍보, 박한용 부회장은 연구와 사회사업, 이정자 부회장은 가정복지 그리고 장현순 부회장은 기획과 교육청소년, 황보 용남 부회장은 전례와 선교조직부를 관장토록 했으며 여성의 활동강화를 위해 상임위원과 집행부서의 두 부서도 여성연합회장의 추천을 받아 중책을 맡도록 했습니다.

여성의 건전한 역할이 교회발전의 원동력임은 자타가 공인하는 일입니다.

그들의 잠재능력을 표출시켜 선진교구의 면모를 일신시키코자 하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들의 믿음이 바탕이 돼서 이뤄지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전임 황의옥 회장이 이룩한 훌륭한 업적에 흠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코 서들지 않고 차분하게 임원들의 철저한 역할분담을 통해 상향식 실천가능한 일들을 꾸려 보겠습니다.

전폭적인 참여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인사로 거듭합니다.

“평신도들은 각기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면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사순절(四旬節)의 의미

박찬길 신부 / 사목국장

1. 사순절이란?

사순절은 주님의 부활축제를 준비하는 40일의 기간을 말한다. 이 시기는 '재의 수요일'부터 시작되어 '주의 만찬미사' 전까지 계속된다. 부활 대축일 전 3일은 '빠스카 성삼일'이라 부르며,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인간 구원의 신비는 절정을 이루게 된다. 오래 전부터 교회는 특별히 이 기간 동안 극기(克己)와 보속(補贖)을 실천하며, 주님의 수난(受難)과 부활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결되어 있음을 강조해 왔다. 그래서 신자들은 사순절이 되면 이미 받은 세례를 다시 생각하고 참회행위를 통해서 부활의 신비를 체험하도록 준비한다. 사순절이 회개와 보속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의 미사에는 기쁨을 표시하는 알렐루야나 대영 광송을 하지 않고, 사제의 제의 색깔도 어두운 자색으로 바뀐다.

2. 재(灰)의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로서 사순 1주일 전(前) 수요일을 말한다. 이 날 교회가 미사중에 참회의 상징으로 재의 축성과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을 행하는 것에서 '재의 수요일'이란 이름이 생겨났다. 이 날 사제는 지난 해 '주의 수난 성지주일'에 축성한 종려 나무나 다른 나뭇가지를 한 곳에 모아 불을 태워서 만든 재를 축성하여 신자들의 머리 위에 십자모양으로 바르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 하십시오"(창세 3, 19 참조). 혹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마르 1, 15). 이것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영원한 삶을 추구하라는 장엄한 의침이다.

3. 40일의 의미

사순(四旬)이란 40일을 말하며, 이 숫자는 성서에 근원을 두고 있다. 성서에 의하면, 40일은 중대한 사건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상징되어 있다.

모세는 하느님의 십계명을 받기 전에 40주야(晝夜)를 시나이 산에서 지내며 단식했다(출애 24, 12-18; 34, 28). 모세가 백성들의 우상숭배 때문에 십계판을 내던져 부순 후 다시 40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밤낮으로 엎드려 기도한 다음에야 십계판을

다시 받았다(신명 9, 15-29). 엘리야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30일간을 걸어서 호렘 산에 갔다(1열왕 19, 8). 예수께서도 복음을 선포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셔서 40주야(晝夜)를 단식하셨고(마태 4, 1-11 참조),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간을 사도들과 함께 지내셨다(사도 1,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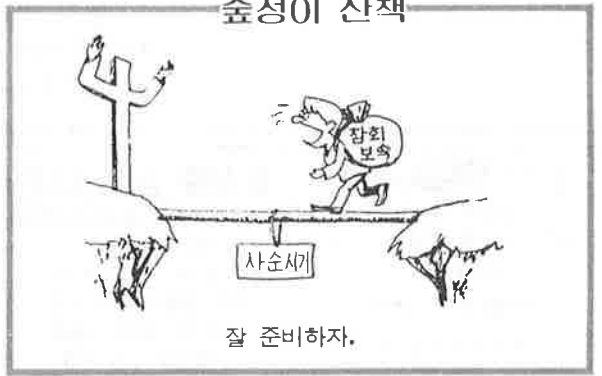
이렇게 볼 때 '40'이라는 숫자는 참회와 속죄로 우리의 생활을 쇠신하기를 촉구하며 신비롭게 하느님과 만나기 위한 합당한 준비를 뜻하며, 또 장차 성취될 중대한 사건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4. 사순절의 애덕 실천

사순절은 참회와 속죄로 주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아 예수님의 부활축일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하느님과 만남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준비로 성인 신자들은 육식(肉食)과 음주(飲酒)를 절제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풀며 단식을 하고, 또한 신앙생활을 가일층 강화하고 심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40일간 광야의 엄재(嚴齋)를 본받아 희생과 극기를 실천하도록 금육제와 단식제를 규정했다. 금육제는 연중 매 금요일과 재의 수요일에, 단식제는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에만 지키도록 했다. 단식은 점심 한끼만 충분히 먹고, 아침과 저녁은 요기 정도 하는 것이며, 금육은 육식을 금하는 것이다. 만 14세가 되면 금육제를 지켜야 하고 모든 성년자(만 18세 이상)는 60세까지 단식제를 지켜야 한다.

숲정이 산책



특집

나의



김영식(루가)
충경성당 군중병

이곳에서 군복무를 시작한 지 7개월째.

‘사순시기’ 하면 ‘재의 수요일’ 예식으로 시작해서 ‘십자가의 길’ 기도와 성주간 전례, 판공성사 그리고 부활계란과 세례식 준비 등의 업무만 머리속을 재빨리 스칠 뿐 내적인 준비는 없었다. 바로 내가 성서 속에 나오는 분주히 일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친 마르타일 것이다. 하지만 무익한 자책을 되뇌기보단 지금부터라도 작은 목표를 실천하려 애써야겠다.

어떤 피정에서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사랑으로 진리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희생을 깨닫고 감격한 적이 있다. 지금, 이곳에서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실천하며 사순을 보내고자 한다.



박열행(세실리아)
행복한 가정운동

십자가를 몸소 지심으로 우리에게 참 사랑과 참 생명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 자녀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이웃들과 만남 안에서, 교회 안에 주신 직책 안에서 얼마큼 성실히 감사와 보답의 삶으로 응답했는지 깊이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생명운동의 봉사자로서 소명을 받은 저는 지금 이 나라의 곳곳에서 원하지 않는 아이라서, 기형아라서, 여아라서 20초에 한 명씩 태아 살해를 하고 있는 현실을 체험합니다. 십자가에 계속 못질을 하고 있는 우리의 무관심과 이기심을 가슴 아파하면서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고통과 아픔을 기쁨으로 채워드리려는 작은 촛불이 되어 투신할 것을 약속드리며, 또 다른 부활의 삶으로 태어나리라 다짐해 봅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결심이 헛되지 않게 도와 주소서. 아멘.”



박현아(안나) 수녀
성바로말수도회

첫서원을 한 후 처음 맞이하는 사순시기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게 된다.

사회홍보수단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리움 받은 것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회홍보수단의 악영향으로 인해 야기되는 죄악에 대해 이 사순시기에 특별히 참회와 보속을 하고 싶다. 사람들의 죄 때문에 상심하신 주님의 성심을 위로해 드리고 죄인들의 회개와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삶, 매일의 삶을 주님께서 맡기신 사도직을 충실하고 열심히 기쁘게 행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지내기로 결심해 본다.

반석영어입시학원

영어·수학·산수·논술
미국인회화, 에드네트 지정학원
학원버스 운행

이 양 구(베드로)

기린봉 아파트 앞 상가
☎ 231-4895, 211-2075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음향,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 교육 및 연주 지도 상담

동서 관통로 다가고 입구
김 태 우(일풍소)
☎ 88-7717~8

플무원 내추럴하우스

플무원이 만든 다이어트!
(전문상담원 무료상담, 체지방 비울측정) 녹즙기 종합대리점
(엔젤/그린파워/요리슨)
김재식(라파엘)·이은실(라파엘라)
정읍시 연지동 연지APT 정문 앞
☎ (0681)535-5432, 536-5432

임혜연 웨딩샵

드레스, 예복 대어전문점
임 혜 연(엘리사벳)

전통백화점 앞 에스프리 2층
☎ 85-5041

사순절은



최길문(아고보)
인후동 성당

우리의 마음은 나약하기 이를 데 없나 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일찍이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마태16,24)고 하셨는가!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은 아랑곳 하지 않고 눈앞에 벌어진 일에만 매달려 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일, 힘든 일은 최대한 피하면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다.

사회 초년병으로서 보내게 되는 이 사순시기에 벽에 걸린 십자가를 새로이 바라보며 예수가 짊어진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임을 자각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두 시간여의 출퇴근길, 나를 기다리는 어린 눈망울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딸의 따스한 숨결 속에 녹아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나의 삶으로 보답하고자 한다. 오직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영옥(루갈다)
평화신문 명예기자

이 사순절에 지각없는 내 행동을 반성하면서 평상심(平常心)을 생각해 본다.

기분 좋으면 좋은 대로 행동하고 기분 나쁘면 나쁜 대로 행동하여 이웃에게 불편과 상처를 줬던 나를 돌아본다.

내가 좋아하는 이웃만을 가까이하여 사람을 편애했던 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맞지 않은 자세로 신앙의 탈을 쓰고 있는 허울 좋은 나를 발견한다.

누구에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자세를 갖도록 이 사순절에 연습하고 노력해야겠다.

그리하여 내 행동이 이웃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요심이 (11) 김병오



치질전문치료
서울의원
치질 레이저로 무통치료 및 무통수술
원장 이상재(베네딕도)
덕진광장 앞
☎ (0652)75-0550

변원구 한의원
변원구(예로니모)
허정자(수산나)
인후동 모래내 다리옆
☎ 252-1783
253-6355~6

성삼일 전례피정
· 일시: 4월4일~7일 오후 1시
· 장소: 성베네딕도 왜관 수도원 피정의 집
· 인원: 85명 · 참가비: 8만원
· 신청 및 문의: (0546) 971-0722
이형우 신부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내어
최윤경(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841-2496, 855-8653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성소모임
초대 교회 공동체의 정신으로 수도생활을 하고자 하는 고졸 이상의 미혼여성
· 일시: 2월25일(일) 오후 2시
· 장소: 삼랑진 본원 (0527)52-4241
· 준비물: 신구약 합본 성서

동정성모회 성소모임
때: 매월 셋째주 오후 2시~5시
곳: 서울수련원 (02)685-7222
대전본원 (042)254-6530
전북지역문의 (0653)855-3783

한국외방선교회 선교수녀회 성소 피정
· 일시: 3월3일 오후 2시~5시 (매월 첫째주일)
· 장소: 부산 부곡동 수녀원
· 문의: (051) 514-1773
· 주제: 새로운 출발

여 명

청소년들에게 빛을

육완태(토마스 아퀴나스)

헤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는 하지만 지난 1, 2월의 대학입시에서 나타난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는 이제 가정과 사회의 차원에서 벗어나 국가적 문제로 등장한 느낌을 주고 있다.

시험과 각종 경쟁에 시달려온 이들 청소년을 보면서 앞으로 5년 후면 다가서는 21세기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하는 대책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하고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은 경쟁과 시험의 중압감에 찌든 세대인만큼 그들에게 보다 활달한 기상과 의지를 심어 주어 다가올 시대를 지배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소양을 길러 줄 의무가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 할 것이다.

오늘의 우리 청소년은 공급자 위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정신적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 같은 정책은 청소년을 획일화, 규격화된 사고와 행동을 가진 인간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러한 사고와 행동의 조장은 청소년들의 다양성 결여와 종합적인 판단능력 부족, 일부 가정과 사회와의 단절, 정신적인 방황을 가져오게 했다.

또 이같은 결과는 이질적 문화와 또는 세대간에 결합이 안되는 경계인이 되어가고 있으며, 어느 경우에는 주변인으로 규정되어지는 경향도 없지 않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입장을 변호해 주고 또 올바른 지식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우리 어른들의 책무는 과연 무엇인가.

첫째는 가정과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들고 싶다. 부모들은 그 동안 자녀들에게서 자신들의 한풀이를 하려 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고 어는 시기가 지나면 모두 잊었던 게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었다.

또한 기계화된 학교교육도 문제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정은 자녀들의 인성교육을 더욱 중요시해야 하며, 학교는 청소년들이 보다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비중을 두어 전인적인 인간을 만들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는 21세기의 경쟁시대에 우위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관리와 육성의 책임을 지워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확충과 문화공간 마련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하며, 이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도 마련해야만 한다.

또 가정과 학교는 정체성(Identity) 확립과 인간성 함양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 속의 나'라는 존재의식과 종합적 사고와 판단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 청소년들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편협된 사고와 시각에서 벗어나 이제는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국내에서의 경쟁이나 세계에서의 경쟁도 결국은 청소년 자신 계층의 경쟁과도 무관하지는 않다.

따라서 눈을 더욱 멀리 더 높이 가져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지성과 덕성을 겸비한 조화로운 청소년들을 길러내고 21세기 세계사를 주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복지증진의 차원에서 환경과 생활의 개혁이 절대 필요하며 지역 또는 국가간의 교류확대도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이론의 연구, 정책개발, 이의 시행, 보급들도 꼭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영창피아노 전주중앙대리점
A/S 전문점

- 6개월 무이자 판매
 - 36개월 월부 판매
 - 중고 피아노 교환 우대
- 전상진(베드로) 유명숙(요안나)
다가동 파출소 옆
☎84-6085, 84-9989

대륙 전자식 온돌 판넬

방바닥을 뜯지 않고
당일 깔아서 바로 사용
박 금 옥(요한)
태평동 혈액원 앞
☎74-3571
(휴)011-655-2231

가톨릭사회복지법인 작은예수회
기쁜 우리 생활

사업소 모집
작은예수회 박성구(요셉)신부
지역 : 전주 및 전북 일원
연락처 : 부산시 경남사업소
(051)758-7111~2
<본사 판매수익금은 상애인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삼성전자 대산대리점

- 가전제품 판매 및 수리
 - 무이자 할부판매
 - 컴퓨터, 휴대폰 무이자 판매
 - 에어컨, 겨울용품 최대인하 판매
- 정 기 수(파스칼)
대산면 시외버스터미널 옆
☎(0677)64-3399, 9933

교 구 소 식

❖ 축! 건진

- 때 : 3월 3일(일) 오전10시
- 장소 : 함열 성당

❖ 전주지역 성서교실 개강

- 때 : 2월 29일(목) 오전10시, 오후7시
- 장소 : 윤호관(구 해성학교)

❖ 천호 피정 안내

- 때 : 3월 9일~10일
- 주제 : 참된 삶
- 강사 : 김기호 신부

· 때 : 3월 12일(화)

- 주제 : 고통과 시련
- 강사 : 최형락 신부

· 때 : 3월 14일(목)

- 주제 : 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 강사 : 권이복 신부
- 문의 : 73-6600

❖ M.B.W(대화과정)

- 때 : 2월 27일~29일
- 장소 : 나바위 교육관
- 참가비 : 50,000원
- 접수 및 문의 : 전주교구청 사목국
- 대상 : 평신도, 성직자, 수도자

❖ 통일염원미사

- 때 : 2월 26일(월) 오후7시
- 장소 : 오룡동 성당
- 주최 : 전국정의구현 사제단

❖ 가톨릭 문우회 모임

- 때 : 3월 2일(토) 오후3시
- 장소 : 가톨릭센터 1층

❖ 가톨릭간호사회 피정 및 정기총회

- 때 : 3월 10일(일) 오전9시30분
- 장소 : 치명자산 성당

❖ 사회교정사목 후원회 월례미사

- 때 : 2월 26일(월) 오전10시30분
- 장소 : 가톨릭센터 3층

❖ 레지오 단원교육

- 때 : 2월 26일(월)
- 장소 : 중앙 성당

❖ 성모기사회

- 때 : 3월 2일(토) 오전10시
- 장소 : 효자동 성당

❖ 웨끌라레 모임

- 때 : 3월 3일(일) 오후2시
- 장소 : 가톨릭센터 1층

❖ 기억할 사제

- 1일 이현석(미카엘)신부 26주기

❖ 축! 영명

- 4일(성가시미로) 오현택 신부님

성소모임

❖ 성바로말수도회

- 때 : 3월 3일(일) 오후2시
- 장소 : 성바로로 서원
- 문의 : (0652) 252-3398

■ 권해드립니다 ■

· 너는 주추 놓고 나를 세우고
최양업 / 5,000원 / 바오로딸
한국의 두 번째 사제인 최양업 신부가 1842년부터 1860년까지 거의 매년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스승 사제께 보고한 편지 모음집이다.

19개의 이 편지에서는 박해의 암담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봉헌하며 목자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던 한 사제의 모습을 가까이 느낄 수 있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발효된 생쓰레기 사용법

- 정원이나 텃밭 한쪽에 발효된 음식 쓰레기를 쏟고 그 위에 흙을 7~8Cm두께로 덮어 둔 다음 1~2주 지난 후 흙과 골고루 섞으면 양질의 토양이 되므로 무엇이든 심을 수 있다.
- 나무에서 40~50cm 떨어진 곳에 구멍이를 파고 묻어 두면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
- 화초나 채소를 가꾸는 가정은 화분 바닥에 1/3정도 먼저 흙을 깔고 그 위에 같은 양의 발효된 생쓰레기를 넣고 다시 흙으로 채운 다음 1~2주 지난 뒤 화초나 채소를 심으면 된다. 보다 싱싱한 꽃이나 무공해 채소를 즐길 수 있다.
- 음식 퇴비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보낸다든지 주말농장에 가져가거나 인근 야산에 뿌려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갖는다.

컴퓨터 프라이어마트

특별 판매 기간

- 컴퓨터 · CD · 프로그램
- 이 건 이(프란치스코)
- 평화주공 1단지 입구
- ☎(0652)231-2237

남부커텐

원단 도매 · 가공 · 시공
인타 · 스모크

김 형 문(대건안드레아)
이 장 주(신리아)

전주 성원오피스텔 옆
☎ (0652) 85-3131

이 전 김중환 치과

가톨릭공제조합지정

원장 김 중 환(안드레아)
박 정 현(레지나)

진북동 우성대내 외환은행 건너편

☎ 88-7744, 77-2011

삼일꽃꽂이연구실

선을 이용한 동양 꽃꽂이
성전 꽃꽂이 상담 및 개인지도

김 진 순(모니카)
김 양 중(라파엘)

동산구 구 연초전조장 옆(구 성당)

주간 : 211-5258, 야간 : 211-6544

덕진 삼익피아노

(서정우 특약점)

- 국가공인 1급 A/S 지정점
- 36개월 할부, 중고보상교환
- 서정우 · 이해경(글라라)
- 북전주전화국←→법원 중간
- ☎ 253-3232, 254-2631

BASIC(베이직)

하이캐주얼

한 해 숙(로사리아)

전주우체국 앞

☎ 82-0032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범영배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1. 사순절 성미주머니, 돼지저금통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사순절 사랑의 성금 접수: 사무실
3. 금주 모임: ①천사의 모후Cu., 자비의 모후Cu. -공식미사 후
②성우회-오늘, 공식미사 후
4. 주간 모임: ①제대회(28일)-어머니미사 후
②울뜨레야(3일)-공식미사 후
5. 금주 청소년: 인후 3, 4반
6. 차주 청소년: 인후 6, 7반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 ◎ 본당 홍보자료 모집: 「서학동 천주교회 30년사」 발간 자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바랍니다.
1. 전화번호부 광고 신청: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에 문의
 2. 예비자교리, 통신교리 신청: 사무실
 3. 사순절 실천표를 작성할 것 만들어 제출합니다.
 4. 반 대항 옷들이 대회: 3월10일(일) 공식미사 후
*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5. 모임 안내: 금주-반장회: 오늘 공식미사 후, 유아방
차주-꾸리아: 3월3일(일) 후 2시
 6. 반모임 안내: 26반-은영태(안드레아)씨택, 저녁 7시,
☎ 83-1190
 7. 축! 혼배: 3월3일(일) 신랑-김용남, 신부-차혜경(엘리사벳)
 8. 청소년 안내: 금주-정의의 동정녀Pr.
차주-사랑하올 어머니Pr.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박삼기

- ◎ 3월은 성요셉 성월
1. 사순절 신앙강좌: 3월1일(금) 후 7시 30분, 강사-권이복 신부 (7시 십자가의 길)
 2. 전주지역 성서교실 개강: 29일(목) 전 10시, 후 7시, 윤호관 (신자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3. 치명자의 모후 꾸리아 간부가 새로 선임되었습니다.
단장-김영기(그레고리오) 부단장-분금철(시몬)
 4. 신자 1인 1단체 가입 운동을 전개합니다.
 5. 차주 모임: 성우회, 대헌회-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사목회-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6. 금주 전례: 해설-오교성, 독서-정춘성 부부
봉헌-이태영 가족
 7. 차주 전례: 해설-정승훈, 독서-강영진 부부
봉헌-오경의 가족
 12. 성당 청소년: 3월 2일(토) 의덕의 거울Pr., 성모 성년Pr.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송영진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주 환

- ◎ 사순절 시작
· 치명자산 산상미사-전 5시30분(평일, 본당에 새벽미사 없음)
· 십자가의 길 기도-매일 저녁 6시30분(성당)
1. 금주 모임: ①성마리아 꼬미시용-후 2시
②초등부 6학년 졸업식 및 종업식-어린이미사 후
③사목회 전위원 1일 피정-25일 전 8시 출발, 장소-수류성당
④교부님 남부 주일
 2. 차주 모임: ①제속칼라라 형제회-후 1시 30분
②에덕의 모후 꾸리아-후 3시
③요셉회-후 6시 ④울뜨레야-후 8시
 3. 주간 모임: ①성화회-26일 후 6시 30분
②성가정회-1일 전 11시
③병자봉성제-1일 후 2시
 4. 신학생 후원을 위한 사순절 돼지 저금통 분배: 사무실 (정성껏 통통한 돼지로 봉헌바랍니다)
 5. 초등부 어린이 가정 방문: 27일~29일
*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강덕용

- ◎ 3월은 성요셉 성월: 요셉 성인을 공경하고 믿음과 겸손, 사랑의 덕 받습니다.
1. 금주 모임: ①성모회, 자모회-공식미사 후
②전례위원 모임-공식미사 후, 해설자·독서자 지원
 2. 차주 모임: ①요셉회, 동정녀들의 모후Cu.-다음주일
②유아세레-전 9시, 사무실에 신청
 3. 주간 모임: ①사목회-3월2일(토) 저녁 7시 30분
②구역(반)장 모임: 3월7일(목), 저녁미사 후
 4. 사순절 실천 사항: ①매주 금요일 금육제(만 14세 이상) ②메미사 전 십자가의 길 기도 ③사순절 불우이웃돕기 돼지저금통 키우기 ④고백성사(회개)와 사랑의 실천 ⑤잘못된 습관 고치기, 극기 및 절제생활
 5. 예비자 교리: 매주일 전 9시, 수녀원
 6. 성모회 회원 모집: 만 40세~60세의 모든 여자교우들은 성모회에 가입합니다.(회합일-넷째주일)
 7. 자모회 회원 모집: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있는 어머니들은 전원 자모회에 가입합니다.(회합일-넷째주일)
 8. 성당 청소년: 금주-천사들의 모후Pr. 차주-구세주의 모친Pr.
 9. 금주 전례: 해설-이준봉, 독서-①강춘수 ②송정자
봉헌-한동욱 가정
 10. 차주 전례: 해설-최원규, 독서-①한동욱 ②김순희
봉헌-김종석 가정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상설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강상근

1. 유아세례: 3월2일(토) 후 3시 사무실에 미리 신청
2. 형제 기도회: ①26일 후 8시 30분, 6구역
②29일 후 8시 30분, 8구역 8, 9반
3. 금주 모임: 울뜨레야, 뭉스회-오늘 공식미사 후
4. 주간 모임: 빈첸시오회-26일 전 10시
5. 차주 모임: 평화의 여왕Cu.-후 2시 30분
성지회-공식미사 후
6. 자선의 날: 28일 어머니, 아버지 미사중에 있습니다.
7. 사회 교정 사목위원회 월례 미사: 26일 전 10시 30분, 가톨릭 센터
8. M.B.W 대화 과정: 27일~29일, 나바위 피정의 집, 27일 전 9시, 가톨릭센터에서 출발
9. 사무실 휴무: 3월 1일(삼일절)

상설 고백소: 매주 화요일~금요일 오후 2시~5시, 전동 성당